창의 융합적 인간 육성 최선

인천구산중, 미래 Trend에 따른 교사역량강화 연수 실시

구산중학교(교장 유영옥)는 지난 7월 8일 교사들을 대상으로 '미래 Trend에 따른 교사역량 강화' 라는 주제로 부평여자고등학교 임단철 교감을 초청해 특강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은 구산중학교가 운영하는 학교혁신 정책공모사업 교사동아리 '미.챗.샘.'(미래형 행복교육을 찾아가는 샘들의 모임)에서 기획한 연수로, 교사동아리 회원뿐만 아니라 구산중 모든 교사가 참여해 미래교육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서 임단철 강사는 창의 융합적 사고의 인재 육성을 위해 지녀야 할 역량의 두 축인 '통섭' 과 '융합' 을 교육의 화두로 삼고 교사들에게 미래의 다양한 트렌드를 제시하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과 고민의 기회를 제공했다.

임단철 강사는 21세기는 미래성장의 동력이 되는 새로운 가치 창출의 지식을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 가공, 저장하는 기술의 기반이 좀 더 질 높은 부가가치 지향의 새로운 지식생산과 창조의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그 변화에 적응하는 창의적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육이 준비해야 할 부분을 짚어줬다.

'움직이는 조각' 이론, 이른바 '키네틱 아트' 로 유명한 21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인 네덜란드 과학예술가 '테오 얀센' 과 스티브 잡스, 래리 페이지, 저커버그 등의 융합적 인간과 미래사회 변화분석에 따른 학교 교육 역량과 집단지성을 통해 창조적으로 사고하고 아이디어를 디자인하며 개선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언급하며, 교사는 창업센터로 변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리더십, 팀워크, 네트워크, 인성교육, 창업가 정신, 창의적 사고, 예측 및 분석능력 등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는 High Concept 시대로서 통찰, 창조, 창출, 관계, 지도, 사고능력 등 통섭과 융합의 능력을 발휘하는 창조적 전문인을 배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문소양과 과학사고, 예술창의력을 접목한 통섭과 창의적인 사고와 의사결정능력의 함양으로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교과서 과목의 변경을 준비해야 하며, 거꾸로 교실과 새로운 배움으로의 수업개선 및 집단지성, 적시학습, Design Thinking의 창의융합시대에 대비해 창의 인성교육을 넘어 창조교육 실현을 위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First Mover 육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학습 활용 및 교사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는 Site와 관련 내용도 함께 소개해 줬다.

오모 교사는 특강 연수를 통해 "미래 교육의 변화 방향에 따라 교사의 생각이 먼저 변하고, 또한 통섭과 융합의 역량에 대한 필요성을 앞장서서 깨치며, 미래 통찰력을 갖고 변화하는 트렌드의 현상을 분석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급증, 초 연결사회, 과학기술의 혁신, 문화의 세계화, 인간에 대한 고찰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을 준비하여 창의 융합적 인간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이젠 엄마도 진로코치!"

김해삼문고, 학부모대학 수료식

경남 김해삼문고등학교(교장 김대수)는 4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월 1회 총 12시간의 학부모대학 강좌를 갖고, 80%이상 이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학부모대학 수료식을 거행했다.

이날 마지막 강의를 맡은 손필희 강사는 '실전 하브루타 학습법' 을 주제로 3시간 동안 역동적인 강의를 진행했으며 "좋은 질문이 답을 이끈다.", "내 귀가 열릴 때 타인의 마음이 보인다."며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하브루타 원리를 소개하고, 체인징(changing)과 스위칭(swtching) 토론학습법을 실전에 적용해 신선한 충격을 줬다.

김해삼문고 총학부모회 교육분과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학부모대학을 개강하였으며,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커리큘럼을 편성해 '뇌과학 기반의 학습코칭, 올바른 소통을 위한 자녀와의 대화법, 피부가 좋아하는 천연비누, 말문이 터이는 하브루타 학습법' 등 총 4차에 걸쳐 12시간의 강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수료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날 수료식에서 여혜정(1학년 학부모) 씨는 "참여가 가능한 시간대인 저녁에 강좌가 개설되어 좋았다. 100세 시대에 평생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해왔는데, 학부모대학을 통해서, 새로운 진로정보도 얻고, 다른 학부모와 친분도 쌓을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대수 교장은 "학교시설은 접근성이 좋고, 교육에 대한 공통관심사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므로 주민과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자녀교육과 진로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고자 노력해왔으며, 오늘 학부모대학 수료식으로 그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세계인구의 0.25%로 노벨상수상자의 30%를 배출한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법에서 질문하기, 토론하기 등 '말하기 학습' 이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원천이었음은 알려진 사실이며, 본교에서도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말을 하며 뇌를 깨우고 사고력을 넓혀나가는 학습법을 교실에 활용하여 창의적 사고를 길러주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호기 기자 khk@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 가격정보 8월말부터 의무 공개

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가격정보가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www.ehaneul.go.kr)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미 올해 1월말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중 일부도 자발적으로 장사정보시스템에 가격정보,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다.

현재 장례식장 1089곳 가운데 1044곳(95.9%), 묘지 490곳 중 416곳(84.9%) 등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화장시설 57곳은 100% 가격정보가 등록돼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봉안당 등 봉안시설 391곳 중에서는 223곳(57%)만이, 자연장지 96곳 중에서는 58곳(60.4%)만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장사법이 개정되면 현재 등록하지 않은 시설도 반드시 가격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 필요한 국민이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복지부는 시설별 가격정보 등록 여부와 거짓 또는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는 등의 행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미래의 인재상을 제시하다

인천연송초 7월 학부모 연수 실시

인천연송초등학교(학교장 박경덕) 시청각교육실에서는 지난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C-TECH 연수소장 김찬배 강사를 모시고 학부모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학부모 연수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려면 아웃사이트형(Outsight) 인재로 키워라'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연송초에서는 올해 4월부터 매월 한 번씩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연수는 주말 오전인데도 불구하고 약 60여 명의 학부모들이 함께했다. 특히 아버지들도 20여 명이나 참여해 아이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김찬배 강사는 시대가 변하는 만큼 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함을 강조했으며 다년간의 강의 경험과 현시대를 읽는 뛰어난 직관으로 학부모들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내며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강의를 했다.

연수가 끝나고 학부모들은 박경덕 교장을 찾아가 많은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시했고, 이에 박경덕 교장은 "우리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부모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함을 강조하며 2학기에도 계속해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다문화체험활동을 통해 글로벌 세상을 체험했어요!

인천옥련초, 글로벌 국제교육 주간 운영

인천옥련초등학교(교장 이기흡)는 7월 7일 다문화체험활동을 통해 글로벌 국제교육을 실시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체험활동을 통해 우리와 다른 지구촌 이웃들의 생활 모습과 전통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우리와 가까운 이웃 나라들인 일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페루, 몽골, 중국, 베트남, 태국 등 8개 나라들의 전통놀이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해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좀 더 가까운 이웃사촌으로 느낄 수 있음은 물론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세계화에 주역으로 한 발 다가서는 좋은 체험의 장이었다. 다른 나라의 전통놀이를 처음 접해보는 것이라 낯설어했지만 곧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각 나라의 민속놀이를 체험했으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었다.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사회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새 시대에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다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옥련초등학교 학생들의 성숙한 마음가짐을 기대해 본다.

안용섭 기자 ays@

교육연합신문 기사제보: news@eduyonhap.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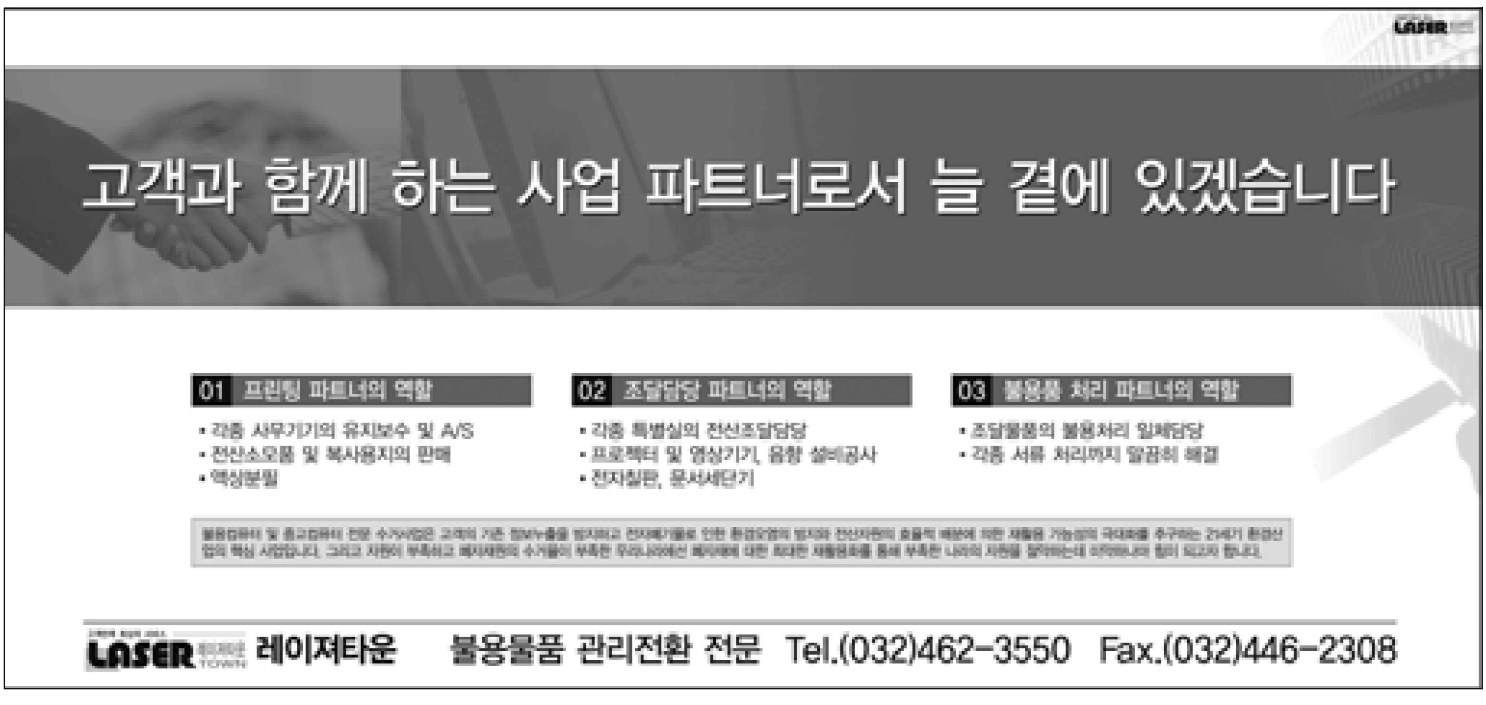
회장 안상섭 사장 한승균 발행인/편집인 김진아

우)135-95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5길 30(청담동)

구독문의/대표번호 02-541-2000 팩스02-3444-0119 인천본부 032-429-1000

경남지사 055-242-8921 영남본부054-273-3336 미주본부 443-621-2625

호남본부 0505-629-3366 FAX 0505-619-3366 전북지사 063-232-3001

2009년 1월 22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48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